

<붙임1> 자기계발휴가 결과보고

<p>학습내용</p>	<p>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p>
<p>키워드</p>	<p>재개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공간적 변화</p>
<p>본 것 ▼ 자기계발 (책)의 주요내용</p>	<p>1.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면서 주거비용을 끌어올리고, 비싼 월세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으로 소개.</p> <p>2. 연구 장소: 총 여덟 명의 연구자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개의 장소(서촌, 홍대, 구로공단, 해방촌, 사이길, 한남동, 가로수길, 창신동, 종로3가)의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기술함.</p> <p>3. 재개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한국적 맥락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신(新)중간계급에 속하는 문화기업가들이 자신들이 지닌 하위문화자본을 풍부하게 투입한 동네를 말하는 반면, 재개발 개념에는 빈곤과 낙후의 이미지만 떠오를 뿐, 미학과 문화는 부재.</p>
<p>깨달은 것 ▼ 나의 이해 · 해석</p>	<p>서울 중심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의 관점에서 해석한 점이 흥미롭다. 영국에서 출발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한국적 맥락의 비교를 통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이 흥미롭다. 예술과 생산의 계층을 비교하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도시 정책에 날카로운 지적도 서슴치 않는다. 공간의 변화를 재개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서울의 핫플레이스의 변화, 서로 다른 궤적, 정책적 측면에서 주요 동네를 사례로 선정한 점도 흥미롭다.</p>
<p>적용할 것 ▼ 개인 · 직장</p>	<p>서울의 글로벌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건축비엔날레 사업의 “생산도시” 컨셉은 봉제 산업의 중심지인 도심권과 밀접한 관련 있으며, 창신동의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봉제박물관 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술가 집단과 의류 제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의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존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필요하다.</p>

이 독서노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최 주 원
(거짓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